

高山七曲 園林과 高山七曲詩 연구*

金 文 基**

차 례

- I. 서론
- II. 高山七曲의 園林의 특징과 高山七曲圖
- III. 高山七曲詩의 作者와 詩世界
- IV. 결론

【 국문초록 】

본 연구는 고산칠곡 원림의 현장 조사와 고산칠곡시 작품연구를 겸한 작업이다. 산수문학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시 텍스트 자체만의 연구에 의존하는 경향이 심하였고 탁흥우의적인 구곡시 작품을 연구한 바가 드물었다. 구곡시는 유학사상을 핵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구곡을 경영했던 유학자의 생애와 학문, 사상 및 자연관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므로 구곡원림을 실제로 조사하고 경영자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고산칠곡시의 대상이 된 고산칠곡 원림의 현지 조사와 시 텍스트의 분석을 병행하여 유기적인 연구를 수행하였다.

1767년 대산 이상정이 대석산 줄기인 제월봉과 미천이 만나는 절벽 위에 서실 3칸을 지어 高山精舍라 이름하고 이곳의 경관을 서술한 高山雜詠을 지었는데, 고산칠곡은 고산정사를 지나서 낙동강에 흘러드는 미천에 설정된 일곱 굽이이다. 제1곡은 凜然橋, 제2곡은 洗心亭, 제3곡은 悠然臺, 제4곡은 高山精舍, 제5곡은 尋春臺, 제6곡은 舞禁亭, 제7곡은 武陵里이다. 고산칠곡도는 대산이 高山亭記를 지어 손수 한 帖子에 적고 그 아래에 七曲의 산수와 亭, 臺 및 거처하던 蘇湖里 집을 그리고 굽이를 따라서 시를

* 이 논문은 2009년도 경북대학교 학술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경북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쓴 후, 그 머리에 高山亭記竝圖라고 쓴 것인데 그림이 사실적이지는 않지만 고산칠곡의 지점을 파악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 각 지점의 위치를 추정할 수 있는 지명이 적혀 있고 건물이 그려져 있어서 고산칠곡을 복원하는데 소중한 자료가 된다.

高山七曲詩에는 각 굽이에서 일어나는 흥취에 의탁하여 觀物求道의인 道學의 경지를 표출하고 있다. 대산은 사상적으로도 퇴계의 嫡傳으로 인정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武夷權歌에 대한 시인식도 퇴계와 일치하여 托興寓意의 고산칠곡시를 창작하였다. 대산 이상정의 武夷權歌에 대한 이러한 시인식이 특히 고산칠곡 제7곡시에 잘 드러나 있다.

주제어

高山七曲, 高山七曲園林, 山水文學, 九曲詩, 九曲詩歌, 九曲圖, 朱子, 武夷九曲歌, 大山 李象靖, 葛庵 李玄逸, 密庵 李裁

I. 서론

산수 자연을 대상으로 그 아름다움을 노래한 山水文學에 대한 연구는 국문학 연구의 핵심의 하나로 자리잡아 왔으나 사상이 내재된 문학, 특히 성리사상을 근간으로 하면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작품들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조선조 유학자들은 朱子の 武夷九曲과 같은 九曲園林을 경영하면서 구곡의 아름다움을 도학적 차원에서 읊은 소위 九曲詩歌를 창출하였던 것이다. 구곡시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본 연구자로부터 비롯되어 지금은 학계의 중요 연구 테마로 등장하게 되었다. 특히 구곡원림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문학과 철학의 양면적인 연구와 享受의 측면에서 자연 자원의 활용이라는 실용적인 차원의 문학 테마관광, 문화관광 자료개발과 같은 현실성이 추가됨으로써 연구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안동지역의 구곡원림 중에서 退溪九曲, 陶山九曲에 대한 연구는 이미 수행된 바 있으나¹⁾ 變形九曲인 高山七曲에 대한 조사와 연구는 수행된 바가 없다.

본 연구는 托興寓意的인 구곡시의 일종인 大山 李象靖의 高山七曲詩와 고산칠곡 원림에 대해 상호 유기적인 연구를 시도하려고 한다.

高山七曲은 안동시 일직면 眉川 일대에 설정된 구곡원림이다. 大山 李象靖(1711~1781)이 이 굽이에 일찍이 은거하며 高山精舍를 짓고 제자를 가르치며 학문에 정진하였다. 대산은 미천에 일곱 굽이를 설정하고 七曲詩를 짓고 七曲圖를 그려서 주자의 무이구곡을 재현하려 하였다. 다른 점은 주자가 아홉 굽이를 설정하고 경영하였다면 대산은 일곱 굽이를 설정하고 경영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산이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추정컨대 미천의 아름다운 굽이가 일곱으로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칠곡을 설정하고 '高山七曲'이라 명명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대산 이상정은 퇴계 李滉 이후, 기호학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침체되던 영남학파에서 퇴계 학문의 계승을 주창하고 일어난 李玄逸, 李裁로 이어진 영남학파의 학맥을 계승한 인물이다. 대산은 외조부 이재를 통하여 영남학파의 학풍을 계승하는 한편, 그 근원이 되는 이황의 사상을 계승하고 영남학파의 사상적 터전을 마련하였다.

대산의 학문은 아우인 李光靖과 南漢朝를 통하여 柳致明으로 이어지고, 다시 李震相에 이르러 唯理論으로 전개되었으며, 한말에 이르러서는 郭鍾錫으로 계승되었다. 정조 때에 병조참지, 예조참의 등에 발탁되었으나 부임하지 않았으며 고종 때에 이조판서에 추증되었다. 뒤에 高山書院에 봉안되었으며 諡號는 文敬이다.

고산칠곡이 자리한 안동시 일직면 소호리 일대는 韓山李氏와 達城徐氏가 대대로 살아온 마을이다. 뒤는 붉은 암벽이 병풍을 두른 듯한 대석산의 남쪽

1) 김문기, 退溪九曲과 退溪九曲詩 연구, 退溪學과 韓國文化 42, 慶北大學校 退溪研究所, 2008.

_____, 陶山九曲 園林과 陶山九曲詩 연구, 退溪學과 韓國文化 43, 慶北大學校 退溪研究所, 2008.

기슭이고 앞은 넓은 들이 펼쳐져 있다. 멀리 황학산에서 발원하여 의성의 옥산을 거쳐 80리를 흘러내린 미천이 마을을 돌아서 흐른다. 1767년, 대산 이상정은 대석산 줄기인 제월봉과 미천이 만나는 절벽 위에 서실 3칸을 지어 高山精舍라 이름하고 이곳의 경관을 서술한 高山雜詠을 지었다. 고산칠곡은 고산정사를 지나서 낙동강에 흘러드는 미천에 설정된 일곱 굽이이다.

고산칠곡의 제1곡은 凜然橋, 제2곡은 洗心亭, 제3곡은 悠然臺, 제4곡은 高山精舍, 제5곡은 尋春臺, 제6곡은 舞禁亭, 제7곡은 武陵里이다. 각 굽이의 명칭과 위치를 지도상에 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고산칠곡 위치도

II. 高山七曲의 園林的 특징과 高山七曲圖

1. 高山七曲의 園林的 특징

1) 제1곡 凜然橋

고산칠곡 제1곡은 凜然橋이니 公山의 남쪽 가에 나루가 있는 곳이다. 이 굽이의 특징은 시내에 불쭙불쭙 솟아 나온 돌들이 자리하고 있는 지점이다. 이 돌들은 미천을 운행하는 배들이 두려워하는 존재였다. 제1곡에 이르는 배가 돌에 부딪혀 뒤집힌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그림 2〉 제1곡 늪연교

현재 미천 일대에는 과거에 나루가 있었던 곳이 몇 군데 있는데 高山七曲詩와 高山七曲圖를 참고하면 고산칠곡 제1곡은 송리철교가 지나는 지점의 미천이다. 이곳에 현재는 버드나무가 있고 과거에 나루가 있었다 하니 이 지점을 고산칠곡 제1곡이라 보아도 무리는 없다. 이 굽이는 현재 경북선 철도가 놓여 있어 이 굽이의 경관을 해치고 있는데, 광음교를 지나서 들관 가 산발치에 난 길을 따라가 미천에 이르러야 접근할 수 있다. 그리고 제1곡의 경관은 송리철교에서 보아야 제대로 볼 수 있다. 송리철교에서 이 굽이를 바라보면 미천이 굽어 도는 형상과 나루가 있었던 지점이 한 눈에 들어온다. 지금은 고산칠곡 제1곡에 이르는 길이 불편하지만 옛날에는 나루를 건너는 사람들로 북적거렸을 것으로 짐작된다.

2) 제2곡 洗心亭



〈그림 3〉 제2곡 세심정

고산칠곡 제2곡은 洗心亭이 자리하였고 넓은 들이 끝나는 지점에 미천이 굽어 돌며 물이 고이는 곳이다. 그리고 굽어 도는 물가에 돌 다리가 놓여 있고 이끼 낀 돌이 물가를 둘러있는 곳이다. 현재 미천 일대에서 세심정을 찾는 일이 쉽지 않다. 세심정이 자리했던 터를

찾을 수만 있다면 고산칠곡 제2곡을 찾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고산칠곡시와 고산칠곡도에 나오는 세심정이 어느 곳에 있었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칠곡시와 칠곡도를 가지고 추정할 수밖에 없다. 굽이와 굽이의 거리, 주변의 경관을 고려하여 추정하면 광음교와 광음1교 사이가 고산칠곡 제2곡으로 추정된다. 지금은 미천의 수량이 많이 줄어 이 굽이의 경관이 아름답다고 말할 수 없지만 대산이 생존했을 때의 미천을 상상하면 이 굽이는 솟아 있는 산과 미천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경치를 이루었을 것이다. 현재 이 굽이에는 대구와 안동을 연결하는 국도가 둘이 있는데 미천의 왼쪽 길은 신도로이고 오른쪽은 구도로이다.

3) 제3곡 悠然臺

고산칠곡 제3곡은 悠然臺이니 푸른 언덕이 양편에 자리하고 가운데로 미천이 흐르는 굽이이다. 그리고 미천 가에 평평한 지대는 나무가 숲을 이루고 있다. 제1곡, 제2곡과 달리 이 굽이는 닫힌 공간이기 때문에 안개와 구름이

자주 드리운다. 그래서 평평한 지대에 자리하는 숲은 아침저녁으로 안개와 구름으로 덮여 있다. 이러한 지형을 가지는 굽이는 광음교 아래에 굽어 도는 지점이다. 미천이 이 지점에 이르면 왼쪽으로 병풍처럼 펼쳐진 벼랑을 만나면서 물이 벼랑에 부딪히며 흘러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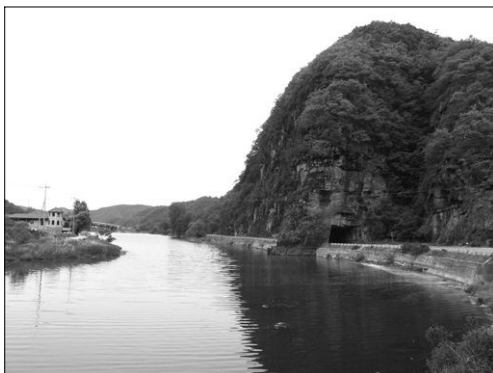


〈그림 4〉 제3곡 유연대

다. 이 과정에서 벼랑 아래 시내의 수심이 깊어진다. 고산칠곡 제3곡은 경치가 아름다워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다. 다만 아쉬운 것은 대구와 안동을 연결하는 국도가 이 굽이의 벼랑 가장자리를 지나가고 있어서 경관이 많이 훼손된 점이다. 병풍처럼 펼쳐진 벼랑의 그림자가 미천의 맑은 물에 드리울 때 이 굽이의 경관은 절경을 이룬다.

4) 제4곡 高山精舍

고산칠곡 제4곡은 대산의 향리인 蘇湖里 앞으로 흐르는 미천이 크게 한번 굽어 도는 지점이다. 굽이의 왼쪽에는 고산서원이 암산의 중턱에 자리하고 고산서원 옆에는 마을이 있다. 굽이의 오른쪽은 대구와 안동을 연결하는 옛 국도가 있고 그 옆에 霽月峯이 우뚝



〈그림 5〉 제4곡 고산정사

솟아 있다. 현재 이 굽이는 산과 물로 형성된 절경이 암산 유원지로 조성되어 평소 많은 관광객이 찾는 곳이다. 아쉬운 점은 대구와 안동을 연결하는 국도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제일봉 산발치 부분이 훼손되었으며 또 새로운 국도를 내는 과정에서 고산서원 뒷산이 훼손되었다는 것이다.

5) 제5곡 尋春臺



〈그림 6〉 제5곡 심춘대

고산칠곡 제5곡은 尋春臺가 있고 그 아래에 미천을 건너는 虹橋가 있던 곳이다. 심춘대는 우뚝 솟은 절벽 위에 있어서 아래로 흐르는 미천을 굽어볼 수 있고 홍교는 미천의 나무를 가로질러 자리 잡고 있었다. 현재 고산칠곡 제5곡은 무릉철교가 가로질러 경관이 훼손된 상

태이다. 그러나 주변의 경관은 아주 빼어나서 무릉철교 앞으로 펼쳐진 절벽과 그 앞을 흐르는 미천은 그윽하고 수려한 洞天을 이루고 있다. 이 굽이에서 아래로 고산칠곡 제6곡인 무금정을 바라보면 펼쳐지는 아름다운 경관에 잠시 말을 잇을 수밖에 없다.

6) 제6곡 舞禁亭

고산칠곡 제6곡은 舞禁亭인데 병풍처럼 펼쳐진 절벽 위에 정자가 있는 곳이다. 제5곡에서 흘러내린 물이 이 굽이에 이르면 왼쪽에 병풍처럼 솟아 있는 바위 절벽을 따라서 흘러간다. 이 굽이는 경치가 너무 아름다워 武陵이라

일컫는다. 陶淵明의 글에 나오는 武陵桃源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은 유원지가 들어서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 휴식 공간이다. 대구와 안동을 연결하는 국도에서 무릉유원지로 들어가는 좁은 길을 내려가면 바로 이 굽이에 이른다. 앞에 높이 솟아 있는 바위 병풍은 보는 이의



〈그림 7〉 제6곡 무금정

눈을 사로잡는다. 미천의 굽이와 이 병풍 절벽이 조화를 이루어 만든 경관은 정말 무릉도원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이 굽이의 오른쪽은 놀이공원을 조성하려 하다가 중단된 상태이고 그 너머 산이 자리했던 곳에는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려 산을 깎아 놓고 그대로 방치한 상태이다. 아름다운 경관을 이용하여 이익을 추구하려 하는 사람들의 욕심이 만든 결과이다. 이 굽이 절벽 위에 있었던 정자가 무금정이다. 출입 금지되는 정자라는 의미가 이 굽이의 의미를 대변한다. 지금은 그 자취조차 찾을 수 없는 상태지만 이로 인해 사람들이 찾아와서 흥겹게 노는 공간이 된 것 같다.

7) 제7곡 武陵里

고산칠곡의 제7곡은 무릉리이다. 다른 굽이와 달리 이 지점은 산이 열리면서 넓은 들이 전개되는 공간이다. 그리고 넓은 들 가운데로 평천이 흐르며 수풀 너머에 사람이 사는 집이 보인다. 제6곡 무릉에서 시내를 따라서 내려오면 무릉 마을이 자리한다. 미천 오른쪽에 넓은 들이 펼쳐 있고 노촌계가



〈그림 8〉 제7곡 무릉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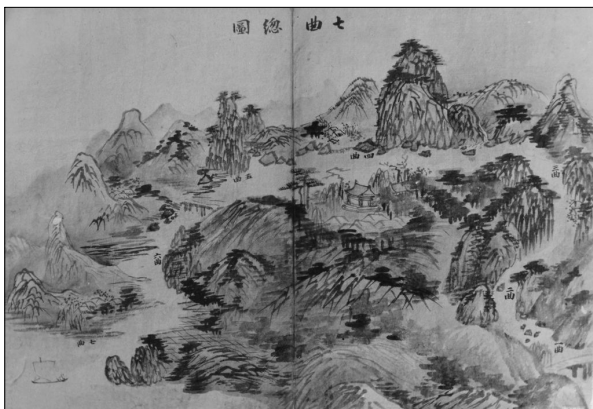
미천으로 흘러든다. 지금은 도시의 확장으로 이 마을에는 공장과 병원이 들어서서 그 옛날 한가로운 마을의 자취를 찾을 수 없다. 그러나 미천은 이 굽이에서 크게 한번 굽어 돌아 낙동강으로 흘러들어 간다. 이 굽이의 특징은 별다른 경치가 없다는 점이다. 사람들이 살

아기는 공간이라 너무 평범한 일상의 공간이다. 그러므로 제7곡의 아름다운 경치를 상상하고 이 굽이에 이른 遊者는 실망할 수 있다. 대신 이상정은 의도적으로 무릉 마을을 고산칠곡 제7곡으로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주자의 무이구곡 제9곡이 평범한 경치가 전개되는 굽이인 것처럼 고산칠곡 제7곡도 사람이 사는 마을을 굽이로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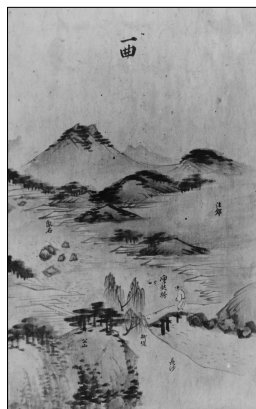
2. 高山七曲圖

고산칠곡도는 대신 이상정이 그린 그림이다. 書高山亭記竝圖帖後를 보면 이상정이 高山亭記를 지어서 손수 한 첩자에 적고 그 아래에 고산칠곡과 여러 정자, 누대 및 소호리 집을 그려서 고산칠곡도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대산 선생이 高山亭記를 지어 손수 한 帖子에 적고 그 아래에 七曲의 산수와 亭, 臺 및 거처하던 蘇湖里 집을 그리고 굽이를 따라서 시를 쓴 후, 그 머리에 高山亭記竝圖라고 적었으니 대체로 선생의 만년의 정력이 모인 것인데 晩修齋에 보관하여 대대로 전하였다.²⁾



〈그림 9〉 고산칠곡총도



〈그림 10〉 제1곡도

그런데 고산칠곡도는 일제강점기에 잃어버렸다가 광복이 되던 해에 李柄求가 대구에서 발견하여 보관하고 있었는데 현재는 후손이 관리하고 있다.³⁾ 고산칠곡도를 살펴보면 일곱 굽이를 그린 7폭의 그림이 있고 다음으로 高山七曲總圖가 2가지 있으며 마지막으로 後序가 있다. 특히 고산칠곡총도는 고산칠곡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전체를 그린 그림과 칠곡을 표시한 개념도가 있다. 고산칠곡도는 그림이 사실적이지는 않지만 고산칠곡의 지점을 파악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 각 지점의 위치를 추정할 수 있는 지명이 적혀 있고 건물이 그려져 있어서 고산칠곡을 복원하는데 소중한 자료가 아닐 수 없다.

2) 大山先生作高山亭記 手書于一帖子 其下手畫七曲山水亭臺及所居蘇湖里第 逐曲題詩以標焉 題其目曰 高山亭記並圖 蓋先生晚年精力所萃也 藏于晚修齋而世傳之矣(『書高山亭記並圖帖後』)

3) 不幸見失於倭寇執政之際 靡得而覓已 至乙酉寇退之後 族叔柄求氏 偶見此帖於大邱某人家 重購而得之 藏于漢城寓舍(書高山亭記並圖帖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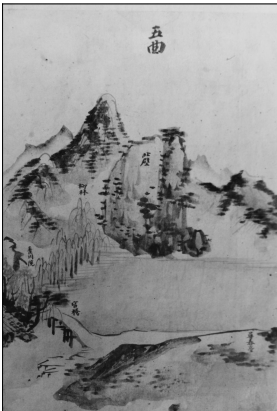
〈그림 11〉 제2곡도



〈그림 12〉 제3곡도



〈그림 13〉 제4곡도



〈그림 14〉 제5곡도



〈그림 15〉 제6곡도



〈그림 16〉 제7곡도

Ⅲ. 高山七曲詩의 作者와 詩世界

1. 大山 李象靖의 삶과 思想

고산칠곡시를 창작한 李象靖(1711~1781)의 삶의 모습을 〈大山先生實

紀) 年譜⁴⁾와李宗洙가 쓴 敍述⁵⁾을 중심으로 살펴 보기로 한다.

이상정의 號는 大山, 字는 景文이며 韓山人이다. 숙종 37년에 安東郡 一直面 蘇湖里에서 葛庵 李玄逸의 외증손이요 密庵 李栽의 외손으로 태어났다. 그의 시조는 稼亭 李穀이고 牧隱 李穡은 14대조이다. 고조 睡隱 李弘祚는 別提 벼슬을 지나다가 광해조때 폐모론이 일어나자 외조부인 柳成龍을 따라 안동으로 남하하여 소호리에 안착하였다.

대산은 어릴 때부터 精明, 穎悟하고 端正, 溫雅하여 莊嚴하고 純粹한 기운이 있었다. 5세 때 비로소 字學을 수업하였고 7세 때에는 十九史를 수업하였다. 12세 때에는 四字書를 읽었고 14세에 외조부 密菴 李栽에게 취학하여 小學과 孟子를 읽고 氣化, 形化에 대하여 질의함으로써 밀암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다. 經史子集을 두루 읽었고 특히 四書와 程朱書를 공들여 읽었다.⁶⁾ 15세에 집으로 돌아왔으나 한해에 한두 번씩 밀암을 찾아 嵬고 詩, 書, 中庸, 太極圖, 西銘, 家禮 등을 배웠다.

17세에 부인 黃氏를 맞이하였고 19세에는 錦陽에게 나아가 近思錄을 강독하였다. 그때 금양으로부터 “君子の 學問하는 방법은 主敬으로써 그 근본을 세우고 窮理로써 그 지식을 이루는 것이 천고의 眞詮이요 妙諦라”⁷⁾는 가르침을 받았다. 그해 11월에는 窮理, 主敬, 謹獨, 篤志, 日新 등 冬至五箴을 지었다.

20세(1730)에는 聖賢遺像卷序와 屏銘을 지었고 이해에 밀암선생 喪을 당

4) 大山先生文集(下), 大山先生實紀 권3, 年譜, 大山先生文集重刊事務所, 1972, 1190~1206쪽.

5) 大山先生文集(下), 大山先生實紀 권3, 敍述, 大山先生文集重刊事務所, 1972, 1227~1233쪽.

6) 經傳子史 靡不遍讀—四書程朱書 最其用功處(大山先生文集(下), 大山先生實紀 권3, 敍述).

7) 君子爲學之方 主敬以立其本 窮理以取其知 此千古眞詮妙諦也(大山先生文集(下), 大山先生實紀 권1, 年譜, 大山先生文集重刊事務所, 1972, 1191쪽)

하였다. 21세 봄에는 心經을 읽었고 自警箴을 지었으며 22세에는 朱子書節要를 읽었다. 23세에는 大學을 읽고 가을에는 進士試에 합격하였다. 25세(1735) 3월에는 鄉解 兩試와 東堂試에 합격하고 4월에는 進士 覆試에, 윤4월에는 급제, 출신하였다. 겨울에는 龜潭書堂에서 綱目을 읽었다. 26세에 易學啓蒙을 읽고 3월에 權知承文院副正字로 임명되어 假注書로 입직했다가 수일 후에 환향하였다. 27세에는 殿講에 참여하였고 28세에는 連原察訪에 제수되었으나 곧 歸覲하였다. 29세에는 宦官했다가 벼슬을 버리고 돌아와 靜觀臺를 축성하고 科學私議와 晚修錄을 지었다.

30세(1740) 3월에는 大學, 5월에는 西銘과 敬齋箴을 강했고 11월에는 率性之謂道說을 지었다. 31세 2월에 徽陵別檢으로 나갔다가 6월에 制養錄을 편집하였고 退陶書節要를 편차하였으며 11월에 心動靜圖와 中庸首章玉山講義 2圖를 그렸다. 34세에는 副司果에 오르고 3월에 一性具四德說을 지었으며 7월에 理氣動靜先後二說을 짓고 理氣彙編을 완성하였다. 35세 10월에는 敬齋箴集說이 완성되었고 11월에 龜潭에서 朱子書를 강하였으며 講錄刊補를 교정하였다. 36세 정월에는 李天暉와 道之體用隱顯에 대해 논하였고 37세에는 陔陽書堂에서 論語를 강론하고 凝菴銘을 지었다. 38세에 처사공의 상을 당했고 39세에 四禮常變通攷와 約中篇을 편집하였다.

41세(1751)에 禮曹正郎에 제수되었고 9월에 易과 論語를 강하였으며 12월에 四端七情說을 지었다. 42세에 사빈서원에서 近思錄을 강의 하였고 43세에 延日縣監이 되었다. 44세에 玉山書院 體仁祠를 배알하였고 46세에 心無出入說을 지었다. 48세에 屏銘發揮을 편집하고 49세 10월에 孤雲寺에서 大學, 或問, 論語를 강했으며 12월에 朱子語節要를 편차하였다.

50세(1760)에 中庸不睹不聞說을 짓고 51세 6월에 密庵先生年譜를 편하였으며 52세에 司憲府監察에 제수되었다. 54세에 아들 堉을 百弗庵門에 從學토록했으며 57세 2월에 高山精舍를 신축하고 6월에 溪門諸子錄을 편하였다.

60세(1770) 정월에 心經講錄刊補를 찬술하고 5월에 高山精舍가 완공되었으 며 7월에는 周易을 읽었다. 61세에는 魯林書院에서 太極圖說을 강하였고 10월에는 康翎縣監에 제수되었으나 병으로 사직하였다. 62세에는 洪範衍義를 교정하고 64세 때에는 아들 垸이 급제하였다. 65세에는 延平答問續錄, 濂溪 全書를 편집하였다. 그의 저술은 義理를 주로 하여 물 흐르듯이 다함이 없었고 自性 중으로부터 流出되어 命理가 절실하고 지극하며 立言이 정밀하고 상세하였다.⁸⁾ 66세에 司憲府 持平, 67세에 司諫院 正言에 제수되었다.

70세(1780) 3월에 兵曹佐郎에 제수되었으나 중도에서 돌아왔고 9월에 通政大夫, 兵曹參知에 陞拜되었으며 10월에는 손자 永運으로 하여금 金宗德에게 취학토록 하였다. 12월에는 禮曹參議에 제수되었다. 71세 3월에는 刑曹參議에 이배되었으나 6월에 상소하여 사직원을 내었고 10월에 寢疾하여 11월에 생도들로 하여금 小山 李光靖에게 가서 배우라고 명하고 永眠하였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大山은 일생을 독서와 저술, 학문에 매진했음을 알 수 있다. 일시적으로 환로에 나아가기는 했으나 곧바로 사직하거나 부임 도중에 병을 빙자하여 귀향하여 학문과 討講에 전념하였다. 결국 大山은 전형적인 학자의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다.

대산의 사상은 정통 성리학을 고수하면서도 새로운 지평을 열었는데 그것은 종래 理氣論을 중심으로 四端七情論, 人心道心論 등 성리학의 주요문제들을 해명할 때 언제나 대두된 主理·主氣의 문제에 대하여 학과적 관점에 얽매이지 않고 객관적이고 자유로운 관점에서 이해를 시도하였다.⁹⁾

영남의 主理論의 정통은 退溪의 제자들을 통하여 영남지역에서 명맥을 이어오다가 중흥조인 葛庵 李玄逸에 의해 부흥되는데, 갈암의 주리론은 政敵들

8) 先生著述 專主義理 渾渾不窮 自性中流出 命理切至 立言精詳(大山先生文集(下), 大山先生實紀卷之三, 敘述).

9) 孫興徹, “大山 李象靖의 四端七情論”, 東方學志 113,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01.

의 主氣論을 의식하여 단련된 것이므로 퇴계의 그것에 비해 理의 능동성이 한층 강화된 것이었다. 이러한 門戶의 입장은 密庵 李裁에 있어서도 그대로 답습되었다. 그러나 대산 이상정은 主理, 主氣 이전에 理와 氣가 不相離하고 不相雜한 本來面目을 환기시킴으로써 양론의 모순을 止揚하려 하였다. 대산의 장점은 퇴계의 주리론이 표방하는 價値爲主의 宣言의 眞理觀을 유지하면서도 栗谷說이 갖는 논리적 강점까지 수용함으로써 단순히 折衷主義적 입장이 아니라 朝鮮性理學史上的 辨證法的 발전을 이룩하고 있는 것¹⁰⁾이라 할 수 있다.

2. 高山七曲詩의 詩世界

고산칠곡시는 大山先生文集 권3에 高山雜詠 九絶과 十六絶 다음에 실려 있는데 序詩는 없고 一曲詩부터 七曲詩까지 7言 絶句 7首로 되어 있다. 이 고산칠곡시는 園林九曲詩 중에서도 變形九曲詩¹¹⁾의 전형이다. 고산칠곡의 제 1곡은 凜然橋, 제2곡은 洗心亭, 제3곡은 悠然臺, 제4곡은 高山精舍, 제5곡은 尋春臺, 제6곡은 舞禁亭, 제7곡은 武陵里인데 제1곡시부터 시세계를 고구해 보기로 한다.

一曲

公山南畔水幽幽	공산의 남쪽 가에 물이 그윽하고 그윽하니
亂石參差易覆舟	어지러운 돌 고르지 않아 배가 뒤집히기 쉽네
惶恐一心能利涉	두려워하는 마음이면 건너갈 수 있으니
瞿塘從古是安流 ¹²⁾	구당협도 예로부터 편안한 물길이라네

대산은 제1곡 늪연교에서 그윽하게 흐르고 있는 냇물을 보고 감회를 토로 하였다. 이 굽이는 크고 작은 돌이 시내 가운데 있어서 배가 오고가는 길에

10) 白道根, “大山學의 朝鮮性理學史上的 意義”, 大東漢文學 10, 대동한문학회, 1998.

11) 김문기, “九曲歌系 詩歌의 系譜와 展開樣相”, 국어교육연구 23, 경북사대, 1991.

12) 大山先生文集(上) 권3, 詩, 一曲詩, 大山先生文集重刊事務所, 1972, 90쪽.

어려움이 많았다. 왜냐 하면 시내 가운데 삐죽삐죽 박혀 있는 돌에 배가 부딪혀 전복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대산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물결을 건너 가면 사납기로 유명한 중국의 瞿塘峽도 편안한 물길이라 하였다. 이는 아무리 험난한 일을 만나도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신중하게 임하면 편안한 삶이 될 수 있다는 뜻을 드러낸 것이다. 이 말은 대산 자신을 위한 다짐이면서 爲己之學을 지향하는 유학자의 처신의 기본이 謹慎임을 우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二曲

平郊欲盡水初渟	넓은 들판 끝난 곳에 물이 처음 고이니
石棧苔磯繞曲汀	돌다리 이끼 낀 돌이 굽은 물가 둘렀네
童冠暮春風浴罷	늦은 봄날 아이들과 목욕하고 바람 쐬 후
振衣高上洗心亭 ¹³⁾	옷을 털고 높이 오르니 세심정이 자리하네

고산칠곡 제2곡은 냇물이 흐르다 고여서沼를 이룬 곳이다. 대산은 論語에 나오는 曾點의 고사를 따라서 늦은 봄날 제자들과 함께 이 굽이에서 목욕하고 바람을 쐬었다. 그리고 堯圓의 고사를 따라서 몸을 씻은 후에 옷을 털고 세심정에 올랐다. 대산이 이 굽이에서 하고 싶은 일이 바로 증점의 기상을 실현하는 것이고, 屈原의 절개를 행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행동은 모두 마음을 깨끗이 하는 일에서 시작된다. 그래서 대산은 세심정에 올라 증점이 목욕하고 바람 쐬는 일을 통해 천리를 관조하고 堯圓이 옷을 터는 일을 통해 시속의 티끌을 용납하지 않는 절개를 실천하였다. 대산은 이 굽이에서 천리를 관조하는 삶을, 시속의 티끌에 물들지 않는 청정한 삶을 살려는 심정을 읊었다.

13) 大山先生文集(上) 권3, 詩, 二曲詩, 大山先生文集重刊事務所, 1972, 90쪽.

三曲

蒼岸雙開一水深	푸른 언덕 양편으로 열리며 한 물이 깊으니
煙雲朝暮暗平林	안개와 구름이 아침 저녁 평평한 숲을 덮네
試向悠然臺上坐	시험 삼아 한가로이 누대 위에 앉아보니
千年誰識見山心 ¹⁴⁾	천년 세월 누가 산을 보는 마음을 알겠는가

고산칠곡 제3곡은 양편으로 절벽이 자리하고 가운데 흐르는 시내는 수심이 깊은 굽이이다. 대산은 이 굽이에서 누대 위에 올라 눈앞의 산을 바라보았다. 그는 천년 세월 누가 산을 보는 마음을 알겠는가 하였다. 우리는 언제나 산을 보지만 제대로 보지는 못한다. 산의 외면만을 보기 때문이다. 천년이 지나도 제대로 이해해 줄 사람을 만날 수 있을지 모르는 것이 산을 보는 마음이다. 대산의 이 산을 보는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바로 湖學의 요체일지도 모른다.

四曲

水靜山深自一村	물이 맑고 산이 깊어 절로 한 마을인데
虛齋終日掩紫門	텅 빈 집은 하루 내내 붉은 문을 닫았네
汀禽欲睡踏花笑	물가 새는 잠이 들려 하고 섬돌 꽃은 피니
一炷爐香坐不言 ¹⁵⁾	향로에 향을 피워 놓고 말없이 앉아 있네

대산은 고산칠곡 제4곡에 고산정사를 지어서 은거하며 제자를 가르치고 학문에 정진하였다. 그러므로 이 굽이는 대산의 藏修之所이다. 대산은 이 굽이를 물이 맑고 산이 깊어 절로 한 마을을 이룬다 하였다. 맑은 물은 미천을 말하고 깊은 산은 제월봉을 말한다. 산이 깊고 물이 맑은 것은 사람이 살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갖춘 것이니 마을이 절로 자리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텅

14) 大山先生文集(上) 권3, 詩, 三曲詩, 大山先生文集重刊事務所, 1972, 90쪽.

15) 大山先生文集(上) 권3, 詩, 四曲詩, 大山先生文集重刊事務所, 1972, 90쪽.

빈 집은 하루 내내 붉은 문을 닫고 있다 하였다. 텅 빈 집은 고산정사를 말하고 하루 내내 닫힌 붉은 문은 정사의 문이다. 고산정사는 많은 문도가 찾는 곳이니 하루 내내 문이 닫힐 리는 없다. 문이 닫혔다는 것은 물가에 잠이 들려 하는 새가 있고 섬돌에 꽃이 피니 고요하고 한가로운 굽이에서 향을 피워 놓고 수양하고 싶은 마음을 드러낸 것이다. 성리학자에게 居敬과 窮理는 어느 하나라도 폐할 수 없는 것이다. 고산정사에서 제자들과 학문에 정진하는 일은 궁리이고 향을 피워 놓고 말없이 앉아 있는 일은 거경이다. 궁리와 거경을 통하여 대산은 퇴계의 학문을 계승할 수 있었다.

五曲

尋春臺下水溶溶	심춘대 아래에 시냇물이 도도히 흐르니
老壁嵯峨古院空	오래된 절벽은 우뚝 솟고 고원은 비었네
一帶虹橋橫渡口	홍교 하나 나루터를 가로질러 놓으니
何人能辦齊川功 ¹⁶⁾	누가 시내를 건너는 공을 힘 썼는가

제5곡은 심춘대 아래에 시냇물이 넓게 퍼져 흐르는 곳으로 고색창연한 절벽 위에 폐허가 된 古院이 있던 곳이다. 院은 나그네들이 묵어 갈 수 있도록 나라에서 운영하는 숙박 시설이다. 그리고 냇물을 건너는 홍교가 놓여 있다. 홍교는 소나무를 베어서 임시로 가설해 놓은 다리를 말한다. 이 소나무 다리는 시간이 지나면 다양한 색깔로 변하기 때문에 흔히 무지개다리라고 불린다. 그런데 홍교는 큰물이 지면 떠내려가기 때문에 매년 다시 놓아야 한다. 소나무를 베어다가 다리를 놓는 일은 많은 노동력이 들어야 하는데, 그 일을 하는 것은 상민이나 천민들이다. 양반들은 다리가 떠내려갔는데도 빨리 다리를 다시 놓지 않으면 상민이나 천민들에게 私刑을 가하기도 했다. 그러나 延日縣監 시절 누구보다도 백성들의 노고를 이해하고 다스렸던 대산은 다리를 놓은

16) 大山先生文集(上) 권3, 詩, 五曲詩, 大山先生文集重刊事務所, 1972, 90쪽.

상민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고마움을 표시하고 있다.

六曲

斷麓透遲面玉屏 끊어진 산기슭 길게 뻗어 옥병을 마주하고
 石田荒草認遺亭 돌밭의 거친 풀 사이에 버려진 정자 있어라
 等閒聲色無人管 성색을 하찮이 여겨서 관리하는 사람 없으니
 依舊山空水自清¹⁷⁾ 변함없이 산은 비고 물은 절로 푸르네

고산칠곡 제6곡 무금정은 玉屏이 둘러있고 버려진 정자가 있는 곳이다. 정자의 이름이 무금정이니 선비들의 풍류공간으로 지은 것은 아니었다. 무회를 데려다 춤을 추게 하고 술을 마시며 즐기는 정자가 아니라는 말이다. 이러한 의미로 지어진 정자는 선비들이 학문을 토론하고 시문을 창작하는 공간으로 활용되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이 정자는 풍류를 즐기는 공간으로 변모되었고 聲色이 따르는 정자가 되었다. 그런데 소호리 사람들은 풍류나 성색을 하찮게 여겨서 정자를 관리하는 사람이 없었다.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한 정자는 돌밭 사이에 버려지게 되었다. 즉 성색이 접근할 수 없는 공간이 되니 산은 찾는 이가 없고 물은 절로 푸르게 흐를 뿐이라 하였다.

七曲

野闢山開但平川 들판이 넓고 산이 열리니 평천이고
 隔林籬落見人烟 수풀 너머 울타리에 인가가 보이네
 奇遊欲盡重回首 기이한 유람이 다하려 하니 다시 머리 돌려
 去管壺中別有天¹⁸⁾ 가서는 호중의 별유천을 관리하리라

제7곡시에서는 고산칠곡을 유람하며 미천을 거슬러 내려온 유자는 제7곡의 경관에 실망하여 머리를 돌린다고 하였다. 너무 평범하고 일상적인 경관

17) 大山先生文集(上) 권3, 詩, 六曲詩, 大山先生文集重刊事務所, 1972, 90쪽.

18) 大山先生文集(上) 권3, 詩, 七曲詩, 大山先生文集重刊事務所, 1972, 90쪽.

이 전개되는 모습에 실망하여 새로운 굽이를 찾아서 나서려는 것이다. 그래서 대산은 다른 곳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머리를 돌리니 저 멀리 壺中の 別有天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그 곳을 찾아가 그 별유천을 경영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었다. 대산에게 별유천은 칠곡의 공간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공간에 있었다. 호중의 별유천은 신선의 세계이지만 대산이 지향하는 극처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은 퇴계의 인식과 궤를 같이 한다.¹⁹⁾

퇴계는 처음에는 入道次第의 입장에서 무이도가 차운시 제9곡을 지었으나²⁰⁾ 사람들이 주자의 뜻을 깊이 터득하지 못하고 화운시를 많이 짓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劉槩가 구곡도가를 생경한 입도차제의 시로 규정하였으나 주자의 본래 뜻은 이와 같이 구구하지 않았을 것이라²¹⁾ 생각하였고, 무이도가를 여러 번 살펴보고 ‘更寬’과 ‘除是’의 어휘가 ‘註意’와는 다른 것 같았기²²⁾ 때문에 제9곡 시를 다음과 같이 새로 짓게 되었다.

九曲山開只曠然	구곡의 산은 열려 오직 광활한데
人烟墟落附長川	사람 사는 마을과 장천이 내려다보이네
勸君莫道斯遊極	권하노니, 이곳이 遊極이라 말하지 말라
妙處猶須別有天 ²³⁾	묘처는 오히려 딴 하늘에 있으니

19) 姜正瑞, “朝鮮後期の 武夷權歌 詩認識”, 東方漢文學 17, 동방한문학회, 1999.
 金文基, “陶山九曲의 設定과 陶山九曲詩의 展開”, 退溪의 文學과 思想, 제22차 退溪學 國際學術會議, 國際退溪學會, 嶺南退溪學研究院, 2009.

20) 九曲來時却惘然 구곡에 이르니 도리어 망연하다
 眞源何許只斯川 진원은 어디인가 오직 사천일세
 寧須雨露桑麻外 어찌 바랄까 상마우로 바깥에서
 更問山中一線天 다시 산중의 일선천 찾는 것을
 (李滉, 『退溪集』, 卷4, 書, 「答金成甫」, 韓國文集叢刊 31, 민족문화추진회, 350쪽)

21) 滉閑中 嘗讀武夷志 見當時諸人和武夷權歌甚多 似未有深得先生意者 又嘗見劉槩所刊行詩 註 以九曲詩首尾 爲入道次第 竊恐先生本意 不如是拘拘也(李滉, 『退溪集』, 卷16, 書, 「別紙」, 韓國文集叢刊 29, 민족문화추진회, 428쪽).

22) 後來反復 其更寬除是等語意 似不爲然 故又別作一首(李滉, 『退溪集』, 卷16, 書, 「別紙」, 韓國文集叢刊 29, 민족문화추진회, 428쪽).

퇴계는 “당초에는 입도차제의 뜻이 없었는데 주석자가 천착 부회하여 구절구절 견합시켜서 그렇게 되었다”²⁴⁾는 언급을 통해 보더라도 제9곡 시를 造道詩가 아니라고 인식한 것 같다.

퇴계는 무이도가 제9곡 시의 本意는 서경시라고 할 수 있지만은 작자의 의도와 달리 독자는 감상을 통하여 함축된 뜻과 造道하는 사람의 뜻을 느낄 수도 있다고 보았다. 퇴계는 진정한 遊者는 구곡의 일상적인 현상에 머무르지 않고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뜻은 만약 遊人에게 모름지기 漁人이 桃源의 경지를 찾아가는 것 같이 권한다면 곧 속세 밖에 있는 별천지의 즐거움을 얻게 될 것이고 여기에 이르러야 바야흐로 究境處가 되는 것이니 단지 지금 보는 것에서 그칠 따름이 아니라 나의 재주를 다한 뒤에야 마치 선 것이 우뚝한 곳이 있을 것이며 百尺竿頭에서 進一步한 곳이 있을 것입니다.²⁵⁾

퇴계는 무이도가 제9곡 시의 ‘別有天’을 桑麻雨露, 人烟墟落이 전개되는 平常의 道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것을 뜻한다고 보았으며 별다른 空間, 別天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파악하였다.²⁶⁾ 따라서 퇴계는 무이도가 제9곡을 註意의 해석처럼 下學上達이라는 생경한 의미로 파악하지 않았으나 言外에 載道的 意味가 다소 내포되어 있음을 부정하지는 않았다.

23) 李滉, 『退溪集』, 卷1, 詩, 「閒居讀武夷志次九曲權歌十首」, 韓國文集叢刊 29, 민족문화추진회, 65쪽.

24) 大抵九曲十絶 並初無學問次第意思 而註者穿鑿府會 節節牽合(李滉, 『退溪集』, 卷13, 書, 「別紙」, 韓國文集叢刊 29, 민족문화추진회, 349쪽).

25) 意若勸遊人須如漁人尋入桃源之境 則當得世外別乾坤之樂 至是方爲究境處 不但如今所見而止耳 乃既竭吾才後 如有所立卓爾處 亦百尺竿頭更進一步處(李滉, 『退溪集』, 卷16, 書, 「答金成甫 別紙」, 韓國文集叢刊 29, 민족문화추진회, 429쪽).

26) 如子貢無詔無驕爲至 曾子隨事精察而力行之 顏子從事博約而欲罷不能之時 皆以眼豁平川爲極至處 及聞貧而樂富而好禮 及聞一貫之旨 及見所立卓爾 皆是到得別有天意思也(李滉, 위의 책, 349쪽).

퇴계는 이와 같이 武夷權歌 제8구의 “遊人不上來” 1구와 제9곡은 본래 경치를 나타낸 것이기는 하나 그 묘사 가운데 托興寓意한 것이 없지 않다²⁷⁾고 하였다.

결국 퇴계는 처음에는 무이도가를 入道次第의인 詩로 보았으나 이러한 생각을 다시 고쳐 觀物求道적인 托興寓意의 詩로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다.²⁸⁾

대산은 영남주리학을 변증법적으로 발전시킨, 퇴계학의 嫡統을 계승한 주론자로 평가받듯이 주자의 武夷權歌를 퇴계와 같이 托興寓意의 시로 파악하였다. 대산 이상정의 武夷權歌에 대한 이러한 시인식이 특히 고산칠곡 제7곡시에 잘 드러나 있다고 할 수 있다.

대산 이상정의 고산칠곡시는 그의 동생 小山 李光靖(1714~1789)에 의하여 “謹步高山七曲韻”²⁹⁾이란 차운시로 계승되었으며 이어서 小溪 丁泰夏(1850~1915)가 “高山七曲”³⁰⁾ 詩를 짓고, 梨山 朴世煥(1874~1928)이 “敬次高山七曲韻”³¹⁾을 지어 근대까지 그 맥을 이었다.

27) 蓋自八曲自是遊人不上來以一句 及此一絕 雖亦本爲景致之語 而其間不無託興寓意處(李滉, 退溪集 권16, 書, 答金成甫別紙, 韓國文集叢刊 29, 민족문화추진회, 349쪽).

28) 金文基, 九曲歌系 詩歌의 系譜와 展開樣相, 국어교육연구 제23집, 국어교육학회, 1991.

姜正瑞, “退溪의 武夷九曲歌 詩認識의 한 局面”, 東方漢文學 제14집, 1998. 참조.

김문기·강정서, 『경복의 구곡문화』, 경상북도·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2008, 34쪽.

29) 步出西郊事事幽 凜然橋上絕行輪 傍人儘莫催歸袂 夫子於斯歎逝流(一曲) 急灘才過水洄渟 十里煙霞饒晚汀 揭厲淺深元自適 巖花間發古山亭(二曲) 山益高高水益深 疎疎密密短長林 溪山自是無情物 惹起幽人世外心(三曲) 石棧橫斜別有村 虛明一室掩柴門 林間欵乃聲初歇 俯仰鳶魚無一言(四曲) 山勢將窮水自溶 野天遼廓秋雲空 閒來曳杖尋花柳 要看天翁織熙功(五曲) 六曲蒼崖左右屏 古人於此立孤亭 玄中趣味憑誰問 寂寂巖阿一任青(六曲) 青山欲斷見平川 籬落村居朝暮煙 林木翳然濛濛想 此間自有武陵天(七曲)〈謹步高山七曲韻〉

30) 洞邃峰回路轉幽 行人久斷繫征輶 寒煙宿霧空長鎖 一脉源泉自在流(一曲) 滾滾溪流漸瀟瀟 棹歌隱隱繞寒汀 從今更著躋攀力 庶見層巒上有亭(二曲) 絕壑層巖勢益深 晚霞初霽出平林 沙明水淨無塵累 蕩滌遊人俗陋心(三曲) 半岸低平別有村 居人解闕向陽門 山雞亂唱沙鷗夢 無限幽情孰與言(四曲) 石逕稍開水復溶 有時灑暗藟蒼蒼 鳶飛魚躍這心成 俯仰乾坤化育功(五曲) 萬壑千巖列畫屏 那時無禁古人亭 停筇注目空悽愴 山自嵯峨依舊青(六曲) 山勢將窮見碧川 眼前無礙捲風煙 偶來瞻望非高遠 知是人間自在天(七曲)〈高山七曲〉

IV. 결론

안동에는 7곳의 구곡원림이 존재하는데 陶山面에는 陶山九曲과 退溪九곡이, 臨河面에는 臨河九曲과 臥溪九곡이, 臥龍面에는 栢潭九곡이, 豐川面에는 河回九곡이 있으며 一直面에 高山七곡이 있다. 이 중에서 고산칠곡을 대상으로 창작된 이상정의 고산칠곡시는 여타 구곡시와는 달리 변형구곡시로서 고산칠곡도가 전할 뿐만 아니라 후대에 차운시가 속출된 점이 특이하다.

그리하여 본고에서는 이점에 착안하여 고산칠곡 원림과 칠곡도에 에 대한 조사, 고증 작업을 실시하였고 고산칠곡시의 시세계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고산칠곡 제1곡은 송리철교가 지나는 지점의 미천이며 제2곡은 광음교와 광음1교 사이로 추정된다. 제3곡은 悠然臺이니 광음교 아래에 굽어 도는 지점인데 미천이 왼쪽으로 병풍처럼 드리운 벼랑을 만나면서 물이 벼랑에 부딪히며 흘러간다. 제4곡은 대산의 향리인 蘇湖里의 고산서원이 암산의 중턱에 자리하고 있는 곳으로 오른쪽은 대구와 안동을 연결하는 옛 국도가 있고 그 옆에 霽月峯이 우뚝 솟아 있다. 고산칠곡 제5곡은 尋春臺가 있고 그 아래에 미천을 건너는 虹橋가 있는 곳이다. 심춘대는 우뚝 솟은 절벽 위에 있어서 아래로 흐르는 미천을 굽어볼 수 있고 홍교는 미천의 나무를 가로질러 자리 잡고 있는데 주변의 경관은 아주 빼어나서 무릉철교 앞으로 펼쳐진 절벽과 그 앞을 흐르는 미천은 그윽하고 수려한 洞天을 이루고 있다. 제6곡은 舞禁亭인데 병풍처럼 펼쳐진 절벽 위에 정자가 있던 곳으로 제5곡에서 흘러내린 물이 이 굽이에 이르면 왼쪽에 병풍처럼 솟아 있는 바위 절벽을 따라서 흘러

31) 一曲高山谷又幽 巖盤石錯不堪舟 戰兢徒涉登平岸 水挾長郊滾滾流//二曲郊終水亦停 蒼巖白石繞漁汀 褰衣更上尋高處 風氣清和有亭//三曲山回水益深 風來琴活岸松林 泠泠聽罷無言立 箇裏愈長萬古心//四曲有巖巖下村 巖頭齋闢向陽門 南箱北篋萃萃集 鄒魯遺風到此言//五曲水水平境又溶 層巒重壁接蒼空 至今渡口橋橫亘 於此推觀濟世功//六曲蒼崖繞似屏 境深風穩樹亭亭 當年杖屨頻臨枉 山益高高水益清//七曲山開野貫川 川心淡活洗塵烟 溶溶直湊吾家路 魚躍于淵鳶戾天<敬次高山七曲韻>

간다. 고산칠곡의 제7곡은 무릉리인데 이 굽이의 특징은 별다른 빼어난 경치가 없다는 점이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공간이라 너무 평범한 일상의 공간이므로 제7곡의 아름다운 경치를 상상하고 이 굽이에 이른 遊者는 실망할 수 있는 지점이다. 주자의 무이구곡 제9곡이 평범한 경치가 전개되는 굽이인 것처럼 고산칠곡 제7곡도 사람이 사는 마을을 마지막 굽이로 설정한 것 같다.

高山七曲圖는 대산 이상정이 高山亭記를 지어서 손수 한 첩자에 적고 그 아래에 고산칠곡과 여러 정자, 누대 및 소호리 집을 그려서 고산칠곡도를 만든 것이다. 고산칠곡도는 그림이 사실적이지는 않지만 각 지점의 위치를 추정할 수 있는 지명이 적혀 있고 건물이 그려져 있어서 고산칠곡의 지점을 고증하고 복원하는데 소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고산칠곡시는 序詩는 없고 一曲詩부터 七曲詩까지 7言 絶句 7수로 된 變形九曲詩³²⁾의 전형이다. 이상정의 고산칠곡시는 동생 小山 李光靖에 의하여 謹步高山七曲韻이란 차운시로 계승되었으며 이어서 小溪 丁泰夏가 高山七曲詩를 짓고, 梨山 朴世煥이 敬次高山七曲韻을 지어 근대까지 그 맥을 이었다.

高山七曲詩에는 각 굽이에서 일어나는 흥취에 의탁하여 觀物求道的인 道學의 경지를 표출하고 있다. 대산은 사상적으로도 퇴계의 嫡傳으로 인정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武夷權歌에 대한 시인식도 퇴계와 일치하여 탁홍우의 고산칠곡시를 창작하였다. 대산 이상정의 무이도가에 대한 이러한 시인식이 특히 고산칠곡 제7곡시에 잘 드러나 있다고 보았다.

32) 金文基, “九曲歌系 詩歌의 系譜와 展開樣相”, 국어교육연구 23, 경북사대, 1991.

【참고문헌】

(1) 단행본

- 金文基, 聞慶의 九曲園林과 九曲詩歌, 한국학술정보, 2005.
김문기·강정서, 경북의 구곡문화, 도서출판 역락, 2008.
范陽, 山水美論, 廣西教育出版社, 桂林, 1993.
楊鴻勛 等, 中國江南園林訪古, 中國展望出版社, 北京, 1984.
王甦(李章佑역), 退溪詩學, 退溪學研究院, 1985.
王毅, 園林與中國文化, 上海人民出版社, 1990.
李敏弘, 士林派文學의 研究, 螢雪出版社, 1987.
李樹建, 嶺南士林派의 形成, 嶺南大 民族文化研究所, 1979.
儲椒生 等, 園林造景圖說,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8.
陳從周, 揚州園林, 三聯書店香港分館, 香港, 1983.
蔡茂松, 退溪·栗谷哲學의 比較研究, 成均館大 出版部, 1985.

(2) 논문

- 姜正瑞, “九曲歌系 詩歌에 나타난 空間이미지와 志向意識”, 경북대 대학원 석사논문, 1993.
姜正瑞, “朝鮮後期の 武夷權歌 詩認識”, 東方漢文學 17, 동방한문학회, 1999.
金文基, “九曲歌系 詩歌의 系譜와 展開樣相”, 국어교육연구 23, 경북사대, 1991.
김문기, “退溪九曲과 退溪九曲詩 연구”, 退溪學과 韓國文化 42, 慶北大學校 退溪研究所, 2008.
김문기, “陶山九曲 園林과 陶山九曲詩 고찰”, 退溪學과 韓國文化 43, 慶北大學校 退溪研究所, 2008.
金文基, “陶山九曲의 設定과 陶山九曲詩의 展開”, 退溪의 文學과 思想, 제22차 退溪學 國際學術會議, 國際退溪學會·嶺南退溪學研究院, 2009.
김병국, “歌 研究”, 성균관대학교 박사논문, 1990.
유준영, “조선시대 九曲圖研究”,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석사논문, 1997.
윤사순, “退溪의 眞理觀”, 退溪學報 25, 1980.
윤진영, “朝鮮時代 九曲圖의 收容과 展開”, 미술사학연구 217, 한국미술사학회, 1998.

Abstract

A Study on the Gosanchilgok(高山七曲) and the Gosanchilgok Poems

Kim, Mun-Kie

This study is what performed organic research by carrying out the field survey of Gosanchilgok(高山七曲), which became the subject of Gosanchilgok Poems, and the analysis of poetic text side by side.

In 1767, Lee Sang-jeong(李象靖) built 3 partitions of library on a cliff that the Jewolbong(霽月峰) and the Micheon(眉川) meet, named it as Gosanjeongsa(高山精舍), and composed Gosanjapyeong(高山雜詠), which described the landscapes of this place. Gosanchilgok is 7 turns that were established in Micheon of flowing in Nakdong river after passing through Gosanjeongsa. The first turn is Neumyeongyo(凜然橋). The 2nd turn is Sesimjeong(洗心亭). The 3rd turn is Yuyeondae(悠然臺). The 4th turn is Gosanjeongsa. The 5th turn is Simchundae(尋春臺). The 6th turn is Mugeumjeong(舞禁亭). The 7th turn is Mureungri(武陵里). As a picture on Gosanchilgok is what Lee Sang-jeong draw, it is not realistic, but is written a geographical designation available for guessing location of each spot, and is drawn a building, thereby having been the precious material in historically proving and restoring Gosanchilgok.

In the poems of Gosanchilgok are being expressed a state of Dohak(道學) by relying on zest of happening in each turn. Lee Sang-jeong not only was recognized ideologically as the authenticity of Toegye(退溪), but also was consistent even in poetic recognition on Muidoga(武夷權歌), thereby having created Gosanchilgok poems of Takheunguui(托興寓意). Lee Sang-jeong's this poetic recognition on Muidoga is well revealed especially in the 7th turn of Gosanchilgok.

Key Word

Gosanchilgok(高山七曲), Landscape Literature, Gugok Poetry, Gugokdo(九曲圖), Juja(朱子), Muidoga(武夷權歌), Dosangugok(陶山九曲), Toegyegugok(退溪九曲)

- 논문투고일 : 2010.6.30. 심사시작일 : 2010.7.17. 심사완료일 : 2010.7.29.